

7·4 共同聲明이 統一에 미치는 影響

보 관 용
(관 리 과) >

1973. 12.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2.

研究機關：釜山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夫 雲 鳳

目 次

序 言	3
第 1 章 7.4 共同声明의 統一指向的 比重과 背景	5
第 1 節 7.4 共同声明의 必要性	5
第 2 節 南・北共同声明의 内容	7
第 3 節 統一政策과의 函数關係	8
第 4 節 南・北調節委員會의 展望	10
第 2 章 經濟政策面에서 본 共同声明	17
第 1 節 7.4 声明의 經濟的側面에서 본 意義	17
第 2 節 南・北經濟의 相互 補充效果	22
第 3 節 北韓의 貿易實態	25
第 4 節 南・北物資交流의 可能性 檢討	27
第 3 章 南・北赤十字會談의 回顧	31
第 1 節 우리의 提議	31
第 2 節 南・北赤十字會談의 그간의 成果	34
第 3 節 産苦끝에 本會談議題 確定	36

序 言

分断 27 年만에 처음으로 南北對話의 길이 열렸다.

自由的이고 平和적인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韓國의 오랜 期間동안의 努力이 이제 겨우 그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지난 1972 年 5 月 2 日 우리 朴正熙大統領은 極秘裡에 李厚洛 中央情報部長(當時)을 北韓 平壤으로 派遣하여 金日成 金英柱등과 만났으며 그 뒤 北韓의 朴成哲이 서울을 다녀감으로써 緊張緩和를 摸索하려는 우리의 主導的 努力의 結果로서 南北의 對話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統一을 爲한 몇가지 原則에 意見의 一致를 보게 되었다.

72 年 7 月 4 日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에 發表된 南北共同聲明은 南北對話의 첫 結實이며 "8.15 宣言" 以後 朴正熙大統領이 一貫性을 가지고 提示해온 平和統一의 構想이 北韓에 依해 그대로 받아들여 졌다는 實證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對話없는 對決"에서 "對話있는 對決"의 段階에 突入했으며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서로 다른 體制下에서 善意의 競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平和競争 體制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民主主義에 대한 確固한 信念이며 競争에서 이기기 爲해서는 國民總和를 實現하는 것이다. 國論을 統一하여 內實을 期하고 또 對話가 万若의 境遇 斷絶될 것에 對備하여 總力安保의 體制로써 完璧을 期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곧 對話를 成功的으로 이끌어 가는 捷徑이요 南北對話에
臨하는 韓國國民의 올바른 姿勢라 할 것이다.

第1章 7.4 共同聲明의 統一指向의 比重과背景

才1節 7.4 共同聲明의 必要性

南北共同聲明은 우리의 能動的인 提案에 依해 그 結果를 보았다. 우리에게 自由性과 自信이 없었더라면 南北共同聲明이라는 歷史的인 結果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韓國은 왜 南北共同聲明이 나올때까지 主導的 役割을 해 왔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려는 朴正熙大統領 領導下의 우리의 自信에 찬 意志에 달려 있는 것이다.

朴大統領은 이미 1970年 8月15日 歷史的인 "8·15宣言"을 낸 뒤에 分斷된 民族의 悲劇을 解消시키고 祖國의 平和統一을 摸索하기 爲해 恒常 自主的인 立場에서 能動的으로 統一案을 찾기 爲해 黙黙히 努力해 왔든 것이다.

朴大統領은 "8·15宣言"에서 南北韓의 어느 편이 國民에게 自由로우며 보다 나은 生活을 할 수 있는 體制인가를 善意의 競爭으로써 立証해 보자는 劃期的인 提案을 냈었다. 이야말로 解放後 25年間 동안에 그 어느 指導者도 해보지 못했던 自信에 찬 自主的인 態度表明이었다. 그뒤 만1年 지난 昨年 8月12日 韓國의 大韓赤十字社의 提案으로 南北 離散家族을 찾기爲한 南北赤十字의 予備會談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韓國의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平和追求를 爲한 꾸

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北韓의 如前한 過熱된 戰爭準備는 韓國의 安全을 威脅하는 하나의 불씨로 되어가고 있었다.

北韓은 所謂 4大軍事路線의 追求로서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裝備의 現代化, 全人民의 武裝化 등으로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单独 速戰速決의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朴正熙大統領은 이에 對 処하여 平和的으로 南北이 接近하여 統一의 길을 摸索하기 爲해서 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戰爭의 危險이라는 불씨를 꺼 없애는 措置를 먼저 取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平和追求를 積極的으로 推進하기 爲해서도 한편으로는 韓國의 安保體制를 強化하여 北韓의 無謀한 南侵企圖를 막지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非常事態를 宣言 하게 된 緣由도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平和統一을 바라는 우리의 自由的이고도 能動的인 姿勢와 함께 總力安保 體制를 強調한 非常事態 宣言은 統一에의 強力한 意志와 戰爭抑制라는 두개의 民族的 使命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南北共同聲明을 나오게 한 背景이라고 할 수 있겠다.

韓國이 非常事態의 어려운 試鍊을 克服하는 속에서 朴正熙大統領은 國家가 나아가야 할 遠大한 計劃을 設計하여 自身과 力量을 바탕으로 한 指導者로서의 卓越한 英斷을 내림으로써 歷史的인 南北對話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南北對話에 대해 北韓側이 誠實한 態度를 取하고 戰爭아닌 平和와 繁榮의 統一祖國을 建設하는 契機로 삼는다면 南北共同聲明은 韓民族의 歷史에 劃期的인 功績으로서 기리 남을 것이다.

才 2 節 南北共同声明의 内容

① 統一은 外國의 힘에 依支하거나 他民族의 干涉을 받지 않으며 韓民族 스스로의 意志와 힘으로써 達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韓民族은 서로 思想이 다르고 社會制度가 다를지라도 이것을 超越하여 먼저 하나의 民族이라는 것을 認識하여 民族의 大團結을 圖하여야 한다.

② 南北은 各各 一觸即發의 對立狀態를 緩和하고 서로 信賴할 수 있는 霧靄氣를 造成하기 爲하여 相互 誹謗하거나 非難하지 말 것이며 어떠한 境遇에도 武力을 使用하지 않으며 突發的인 行動으로써 軍隊가 衝突하는 事故를 預防하기 爲해 積極的인 措置를 取할 것에 合意하였다.

③ 斷絶되었던 民族間의 連絡과 關係를 다시 回復하고 相互의 理解를 敦篤히 하여 民族 스스로의 힘에 依한 平和統一을 早速히 推進하기 爲해 南北間에 諸般 交流와 往來를 하기로 合意했다.

④ 雙方은 現在 全民族의 큰 期待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이 早速히 그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 積極的으로 協助하는 것에 合意했다.

⑤ 雙方은 突發的인 軍隊間의 事故를 防止하며 南北사이에서 일어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하게 處理하기 爲해 서울과 平壤間에 언제든지 使用할 수 있는 直通電話를 架設할 것에 合意했다.

⑥ 雙方은 以上の 合意事項을 推進시켜 祖國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部長과 金英柱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

調節委員會를 構成하여 運營할 것에 合意했다.

7) 双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이 祖国統一을 一日千秋의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는 全民族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될 것을 믿고 이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해 나갈 것을 全民族 앞에 嚴肅히 約束한다.

以上이 共同声明의 大體의 內容인데 其中 實務的이며 節次的인 事項을 除外한다면 새로운 것은 없다. 모두가 朴正熙大統領이 훨씬 前에서 부터 主張한 提案과 같은 內容이다. 結局 平和統一을 爲한 朴正熙大統領의 계속적인 努力이 結實을 봤다는 點에서 南北 共同声明의 意義와 成果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才 3 節 統一政策과의 函數關係

合意된 統一原則은 韓國이 繼續 取해온 基本統一方針과 實質的으로 다를바 없으며 또 그것에 變質을 가져올 것도 아니다. 南北 共同声明에서 밝히고 있는 自主平和統一原則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外勢에의 依存이나 外勢의 干涉없이 自主적으로 統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自主적으로 統一에의 努力을 하지않고 成算도 없이 外勢에 依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不當한 外勢의 干涉에 依해 自主的 統一努力을 拋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人口比例에 따른 國聯監視下의 總選舉와는 韓國의 統一政策에 대해서도 國聯은 外勢가 아니므로 自主的方

法에 依한 韓國의 統一基本政策에는 아무런 變化도 없는 것이다.
다음 平和的 統一方法이 強調된 것도 韓國의 基本方針과 一致하는
것으로서 問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으로 大團
結을 圖謀한다는 것은 같은 白衣民族으로서 分斷된 悲哀를 打開하
여 統一에 對한 民族의 念願을 政治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따라서 平和統一에의 意志에 바탕한 韓國의 統一政策을 보다 現
實的으로 補充한 것이라 하겠다.

이 때까지 韓國政府는 反共을 國是의 第一로 삼아 強力한 反共政
策을 堅持해 왔다. 現在 비록 共產主義者와의 對話의 길이 열렸
다 해도 6.25 動亂을 일으켜 같은 民族이 피를 흘리는 悲劇을
가져온 共產主義를 받아들일수는 없는 것이요 그것을 許容할 수
없다는 基本立場에는 變함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不俱戴天의 共產主義者와의 對話를 나누게
되었는가 그것은 統一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民族의 悲願과 戰
争의 慘禍에서 民族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겠다는 意志가 너무나
切實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즉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넘
어서 먼저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民族的 團結을 圖謀해야 할 * 것에
共同聲明의 趣旨와 同一한 點이 있다.

對話를 하는 것이 共產主義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明白히
認識해야 할 것이다.

才 4 節 南北調節委員會의 展望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됐다고 해서 祖國의 統一이 目前에 達달은 것은 아니다. 또 南北의 對話가 始作되었다고 해서 韓半島에 지금 당장 平和가 온 것도 아니다.

南北共同聲明은 250 km 休戰線을 가운데 두고 極도로 高潮된 緊張狀態를 解消시키고 戰爭의 慘禍를 막겠다는 民族의 對話가 始作된 곳에 그 意味가 있다. 몇 차례의 對話를 통해서 緊張을 緩和시킬 것에 合意하고 自主的 平和統一의 原則과 이를 推進하기 爲한 몇가지의 方法에 關해 意見의 一致를 본데 不過하다.

이제 祖國統一을 爲한 南北間의 對話는 始作되었다. 「對話없는 對決」, 「軍事的 對決」을 避하고 「對話있는 對決」 「善意的 對決」을 指向하는 새 時代에 접어들었다. 理念과 思想이 다른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兩體制 間의 그야말로 어려운 對話가 始作된 것이다.

이 南北간의 對話가 韓民族의 最大의 念願인 祖國統一을 達成하는 꿈을 實現시켜 주느냐 아니면 結實을 보지 못하고 다시 對話가 끊어진 「軍事對決」의 時代로 되 돌아가느냐 하는 問題는 아무도 予測할 수 없다.

南北共同聲明을 통해 서로가 굳게 約束한 바와 같이 「大小간의 武力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涉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막기 爲해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고」 「南北間에 多才面的인 諸般交流를 實施」 하고 「南北赤十字會談이 하루라도 빨리 成功하여」 「李厚洛 中央情報

部長과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가 円滑히 運營되어 自主 平和統一을 為한 南北간의 約束이 誠實히 履行된다면 統一에의 길은 한걸음 가까워 진다. 그러나 南北의 어느 한쪽이 約束을 지키지 않는다면 統一에의 길은 막히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統一을 為한 朴正熙 大統領의 一貫한 執念과 提案을 돌이켜 볼 必要가 있다.

멀리까지 遡及할것도 없이 1970年 8月15日 朴正熙 大統領은 北韓이 武装계렬러의 南派등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即刻 中止하고, 所謂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依한 大韓民國의 顛覆을 企圖했던 從來의 態度를 完全히 拋棄한다는 點을 内外에 宣言하고 行動으로써 實証한다면 南北間에 가로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가겠다는 意思를 밝히고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争"에 나설것을 提唱했다. 이러한 平和統一의 構想을 朴正熙 大統領은 機會있을 때 마다 一貫性있게 提示해 왔으며, 지난 3月の 陸軍士官學校 卒業式에서도 平和統一을 為한 5個項 先行條件을 提示한 바 있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볼때 北韓이 共同聲明의 約束을 어느程度 誠意를 가지고 履行했으며, 또 統一을 為한 對話에 臨하느냐에 달아 事業 成敗의 열쇠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南北의 諸政黨과 社會團體 代表者들로서 會談을 열어 統一選舉를 實施하고자 提案해 놓고는 채 20日도 안가서 6.25 動亂을 일으킨 일이나, 休戰協定에 調印한 以來 이때까지 1萬件을 넘은 協定

違反 事件을 저질른 것, 또 1962年 以來로 所謂 “4大 軍事路
線”을 採択하고 北韓 全域을 要塞化하는 등 戰爭準備에 狂奔해
온 北韓이 果然 誠實과 誠意를 가지고 南北共同聲明에서 約束한
諸般努力을 傾注해 줄 것이냐의 與否에 全民族의 關心과 期待가
集中되어 있다.

祖國의 統一은 分斷 4半世紀 동안을 一日千秋로 渴望해 온
民族全體의 피어린 念願임을 생각할 때 韓國側은 무엇보다도 北韓
이 誠意를 가지고 對話에 臨해 줌으로써 民族의 念願을 저바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結局 南北對話의 앞날은 지나친 悲觀도 必要없으며 또 너무 樂
觀하여 垂手傍觀하고만 있을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性急한 感傷的 統一論議에 빠져서는 안되며 冷徹한 判斷
으로 이 民族이 나아가야 할 똑 바른 方向을 찾아내야 한다.

4半世紀동안의 分斷의 歷史에 새 轉機를 마련할 “南北共同聲明”
이 發表되었다. 自主·平和統一을 爲한 南北의 對話의 門은 열렸
다. 緊張을 풀기爲한 對話 이러한 對話가 南北間에 가로 놓
였던 壁을 뚫고 오고가기 始作했다. 그러나 本格的인 對話는 지
금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된다. 人爲的 障壁과 思想的 障壁을
除去하겠다는 매우 어렵고 벽찬 對話가 몇몇 사람의 힘 만으로
結實을 보리라고 到底히 期待할 수 없는 일이다. 全國民이 이에
參與하고 聲援하지 않으면 對話는 順調롭게 進轉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南北對話에 臨하는 國民의 姿勢는 어떠해야 하는가 韓國民
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對話에 臨하는 全國民은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透徹한 信念을 가져야 한다.

自由民主主義가 日常生活에 뿌리를 박도록 하는 한편 民主的인 秩序와 體制를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北韓에 對해서는 自由民主主義를 가르쳐 주고 그 優越性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自由의 물결이 北韓으로 怒濤처럼 흘러들어가 北韓同胞가 自由를 爲한 鬪爭에서 앞장서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北韓과의 平和的 對決, 善意의 競爭에서 勝利하는 捷徑인 것이다.

2年前 朴正熙 大統領이 提示한바에 따라 韓國은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보다 豊裕하게 하며 잘 살수 있는 條件을 갖춘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서게 된 것이다. 韓國의 一貫한 提案을 北韓이 受諾한 以上 韓國은 民主主義의 優越性을 實証하는 平和的 對決에서도 期必코 勝利를 爭取해야 한다.

다음 對話는 国力을 그 밑 바탕으로 해서 推進되어 진다는 原理를 생각할때 對話를 成功裡에 밀고 나가기 爲해서는 먼저 国力을 길러야 한다. 韓國이 南北間의 對話를 主導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우리의 国力이 成長했다는 것을 意味한다.

事實 韓國은 지난 60年代에 才1次 才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裡에 完遂하여 工業化의 基盤을 構築하고 70年代에 들어서 는 한편으로는 「北韓의 戰爭準備」에 對處할 수 있는 自主

國防의 힘을 기르고 또, 한편으로는 才3次 5個年 計劃을 새로이着手함으로써 「安定과 均衡」을 目標로 해마다 發展을 거듭해 오고 있다. 더욱기 今年度부터 勤勉, 自助, 協同의 精神으로 繁榮하는 마을, 繁榮하는 國家를 達成하기 爲한 새마을 運動 즉 새로운 마을 만들기運動이 全國에서 燎原의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北韓을 훨씬 앞지른 이러한 國力の 伸張에 따라 韓國側은 自信과 勇氣를 가지고 平和統一의 構想을 먼저 提唱하여 韓國의 主導下에 北韓과 對坐하여 統一의 길을 摸索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今後 展開되는 北韓과의 對話를 通해서 韓國이 追求하는 自主, 平和統一의 念願을 成就하기 爲해서는 今年부터 始作한 才3次 5個年計劃의 推進에 拍車를 加하여 祖國의 繁榮을 目標로 하는 새마을 運動을 成功시킬 수 있도록 經濟的 內實을 期해야 할 것이다. 經濟的 內實뿐만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모든 分野에서 北韓을 凌駕하는 國力を 育成함으로써 비로소 南北의 對話를 成功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對話의 成敗는 北韓이 어느 程度의 誠意를 가지고 對話에 臨하느냐를 생각할때 우리는 性急하게 對話의 成果를 期待한다거나 서두를 必要는 없다. 忍耐와 誠實으로써 對話를 推進해 나가는 姿勢가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더욱기 今番 金英柱의 一方的인 8.28의 對話斷絶 聲明등이 우리에게 冷水3斗를 끼얹는 覺醒作用을 했다. 우리는 계속 對話의 再開에도 이니시어티브을 잡고 꾸준한 努力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奮發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感傷的 統一論

議 못지않게 지나친 悲觀이나 挫折感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驍國과 비슷한 狀況에 있는 獨逸이 全國民의 結束된 支援을 받으면서도 長期間의 會談過程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그 解決의 실마리를 찾게 된 例는 分斷된 國家를 統合하려는 對話가 그 結實을 볼때까지는 적지않은 時間이 必要하다는 것을 證明하고 있다.

꼭 참고 견뎌서 서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聲援하는 態度 이것이야말로 西獨이 東獨을 앞질러 對話를 主導적으로 이끈 原動力이었다.

한편 斷絶되었던 對話가 再開된다 할지라도 北韓이 如前한 態도로 誠意를 보이지 않고 또 決裂의 破局으로 물고 갈 境遇도 想定하여 이에 對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金日成은 1950년에 偽裝된 平和攻勢를 展開해 놓고는 奇襲적인 6.25 動亂을 일으켰으며, 休戰後에는 또 武裝계렬러를 南派시키는가 하면 非武裝地帶를 要塞化하는 등 戰爭準備를 끝냈다는 事實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最近 西海岸에서 頻發시키고 있는 北韓 海軍의 노략질은 警戒를 要하는 事態라 하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間의 對話의 再開와 推進에 尽力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萬一의 事態에 對備하여 總力安保의 體制를 一層 굳혀가야 할 것이다.

現段階에서는 對話가 始作되었다가 一旦 中斷되었으며 다시 再開될 機能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은 다만 平和追求의 努力이 傾注되고 있다는 事實外에 아무런 變化도 없다는 즉 말하자면 至極히

어려운 狀況下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겠다.

다음 南北對話를 成功시켜 統一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國民의 總和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朴正熙 大統領이 周邊情勢의 바른 判斷下에 平和統一을 提案했고 北韓이 이를 受諾한 以上 韓國民族 間에 異見은 있을 수 없으며 傍觀도 있을 수 없다.

南北의 對話를 支援하기 爲해 國論을 統一하지 않으면 안되며 國民의 努力을 하나로 結集해야 한다.

大業을 達成하기 爲해 全國民이 一致團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分斷 27年만에 처음 試圖된 自主平和統一을 爲한 對話는 進展되고 또 結實을 보게 될 것이다.

第 2 章 經濟政策面에서 본 共同聲明

才 1 節 7.4 声明의 經濟的側面에서 본 意義

1972年 7月 4日 5千萬 우리民族의 耳目을 集中시키고 全世界를 들끓게 한 感激의 날. 이번의 南北共同声明은 정말 歷史的이고 도 衝擊的인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4 共同声明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 사람에 따라 多少의 뉴앙스나 見解의 差는 있겠지만 經濟的 側面에서 이를 다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歷史的으로 볼때 現在 우리가 處해있는 이 時點은 4半世紀의 긴 歲月이 흐른 後에 처음 있는 重大한 轉換點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1945年 才 2次 大戰의 終結과 함께 國土가 南北으로 分斷된 以來로 南北關係는 敵對的인 對決關係에 始終해 왔었다.

分斷以來 非公式的이고 冒險的인 協商이 여러번 試圖되었었지만 6.25 動亂이라는 民族相殘의 極限對決이 있었고, 傍戰後에도 北韓의 철새 없는 挑發的인 武力赤化工作으로 因해 이날에 이르기까지 南北關係는 停戰下에서 對決關係를 持續해 왔었다.

이러한 南北關係에 解氷무우드가 나타나기 始作한 것은 赤十字社를 主軸으로 하는 南北赤十字會談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롯했다. 勿論 그 背景에 美·蘇·中 3國간의 國際政治面에서의 解氷現象등이 作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의 共同声明은 이때까지의 南北關係에 큰 變化를 가져왔다. 이것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分斷

상태가 「對決의 時代」에서 「對話의 時代」로 移行한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4半世紀에 걸친 斷絶狀態에 終止符를 찍고 南北의 連繫關係의 復活을 爲해 韓國의 近代史에 一大轉機를 마아크하게 했다.

다음 政治的 側面에서 이를 다시 整理해 보면 7.4 共同聲明은 한층 더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7.4 聲明이 南北의 統一政策에 重要한 變化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共同聲明에 依해 南北雙方의 統一政策에 共通의 基本的인 方向이 設定되었다는 事實이다. 共同聲明속에서 南北雙方은 統一問題에 對한 3 原則에 合意한 것이다.

이 3 原則은 解釋如何에 따라 많은 問題를 안고 있겠지만 어쨌든 雙方이 共通된 하나의 統一政策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政治的인 面에서 봤을 때 「劇的인 進展」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結果가 나오기까지에는 그야말로 긴 歲月동안의 努力과 協商이라는 經過를 겪지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結果이기 때문이다. 이점 우리政府의 英斷은 높이 評価되어야 한다. 다만 이 統一 3 原則에는 몇가지의 問題가 남아 있는 것을看過할 수 없다.

첫째 「外勢」의 概念이다. 國聯을 創設한 根本趣旨와 目的, 그리고 그 機能등의 面으로 보아 우리는 國聯을 外勢의 範疇에 넣을 수 없다. 万若 國聯을 外勢로 본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國際社會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다음 思想, 理念, 制度의 差를 不問한다는 것은 異質的인 相互의

体制를 그대로 現實로 認定하고 그 위에 統一을 實現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두개의 異質的 現實의 複合으로서의 統一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統一問題 또는 統一作業에 接近하는 하나의 方法 또는 立場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決해야 할 것이다. 「現狀凍結」이라는 國際潮流에 適應하려는 外交方針의 端的인 表現이라고 擴大解釋을 할지는 모르지만 「現狀凍結」의 本質이 統一을 排除한 것인 限에 있어서 이것은 決코 그러한 現狀凍結을 意味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万若 이 項目을 그와 같이 擴大解釋을 했다고 하면 統一三原則 自体가 矛盾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統一을 爲한 三原則이라고는 말할수 없을 것이다.

다음,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設定된 南北調節委員會의 性格과 機能을 어떻게 規定하고 어떻게 組織 運營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共同聲明에 依하면 이 調節委員會는 統一問題를 協議하기 爲해 設定된 것으로서 그 機能은

- ① 7.4 聲明의 合意事項을 推進하고
- ② 南北間의 懸案問題를 解決改善하며
- ③ 統一三原則에 立脚하여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이 調節委員會의 任務이다.

이와 같이 南北을 잇는 파이프 라인 또는 對話의 廣場의 範疇을 넘는 多角的인 南北統一委員會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單只 政治的인 問題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問題까지도 取扱하게 된다고 생각되며, 7.4 聲明에서 밝힌 바와 같이 兇事事故의 予防도 包

包한 綜合的 多目的的인 性格의 것이라고 解釋된다. 이와 같은 重大한 性格과 機能을 가진 委員會를 어떻게 形成하여 運營해갈 것인가는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万能에 가까운 全權이 賦與되지 않는限 委員會의 設定目的에 相當한 任務를 다하는 것은 不可能할 것이다.

4) 社會的인 面에서 보면 7.4 共同聲明은 매우 衝擊的인 同時에 條件反射에 가까운 反應을 惹起시켰다 하겠다.

南北間의 緊張狀態를 緩和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相互信賴의 雰圍氣를 造成하기 爲해 서로 中傷과 誹謗을 排擊하고 武力挑發 行爲를 中止하며 不意의 衝突을 防止하기 爲해 積極的인 措置를 講究하고 斷絶된 民族的連繫를 復活시키기 爲해 多方面에 걸친 交流를 行할것. 그리고 赤十字會談을 成功시키기 爲해 積極的으로 協力하는 것등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社會的 軍事的인 合意는 오랜 民族的 念願이 이루어질 날도 멀지않았다는 一種의 幻想的인 期待와 앞날에 대한 予測에 있어서 論理의 飛躍을 招來하고 말았다. 이것은 곧 條件反射的인 反應이라고 하겠다. 이때까지 뼈에 사무쳐 있던 우리의 괴로운 經驗을 解消시켜 버리고 마치 記憶喪失症에 걸린 것과 같은 印象이다.

현재 이러한 期待를 現實的인 것으로 만들기 爲해서는 前提가 되는 하나의 必須條件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南北聲明에서 闡明한 合意事項을 北韓側이 얼마나 誠意를 가지고 遵守 하느냐의 與否에 따라 未來에 대한 모든 期待는 假想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半世紀의 南北關係를 도리켜 볼때 이 때까지 約束된 事項이 없었기 때문에 武力的인 挑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理事停戰委員會의 記錄이 雄弁的으로 立証하고 있다. 却說하고 社会的 作用은 多分히 既存秩序에 對한 攪亂 乃至는 整理를 要하게 하는 일들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認識하고 또 對處해 나가야 하는가를 좀더 眞摯하게 論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勿論 7.4 声明은 대단히 많은 點들을 示唆하고 있다. 또 社会的 安定感을 定立시키겠다는 心理的인 面도 看過할 수는 없다. 今後의 對話의 進行如何에 따라서는 스포츠, 文化등의 非政治的인 交流가 充分히 予測되는 것이다.

한편, 經濟的인 面에서 보아도 國內外에 많은 反應을 招來했다고 하겠다.

먼저 對外的인 面에서 볼 경우 心理的인 作用이 적지않은 것 같다. 그하나를 지난번의 非常事態 宣言이 經濟에 미친 心理的 作用에 對한 減殺效果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國際的인 不況의 影響에다 더구나 非常事態의 宣言은 企業經營을 비롯하여 國民生活에 적지않은 心理的인 影響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心理的인 壓迫은 7.4 声明에 依해 어느程度 減殺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南北經濟의 部分的인 補充性的인 復活을 可能케 했다는 것이다. 다음 對外的인 面에 있어서 아직 具體的인 徵候는 없지만 外國資本 特히 多国籍 企業에 對해 對韓投資의 可能性

을 한층 더 높였다고 보겠다.

外國資本이 우리나라에 投資하는데 있어서 이때까지 否定的인 投資環境 概念의 하나가 分斷에서 오는 投資의 安全性的 欠如에 있었다는 것은 疑心の 余地가 없다. 이러한 政治的 特殊性은 오래 동안 外國과의 經濟協力을 阻害하는 要因으로 作用해 왔다. 비록 7.4 聲明이 投資의 安定性を 絶對 保障하는데까지는 가지못해도 적어도 어느 程度는 不安定性을 改善해 나가는 하나의 契機가 될 것은 疑心の 余地가 없다.

이와 같은 予測은 特히 美.中間의 急進的인 接近으로 助長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予測 乃至 期待는 事態에 鋭敏한 日本資本의 경우와 같이 北韓과의 經濟協力을 增大시킬 可能性과 함께 相對的으로 그에 對한 否定的 作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才 2 節 南北經濟의 相互 補充效果

여기서 過去 4半世紀에 걸친 「斷絶의 時代」에 있어서의 南北間의 經濟關係를 돌이켜 보고자 한다.

8.15 解放 直後의 混亂時代에는 南北經濟가 多少의 接觸이 있었다. 여기서 그 經緯를 概述해 보겠다.

먼저 南北間의 投資交換이 公式으로 行해진 것은 韓國政府 樹立 直前인 1948年 8月2日 當時의 商務部令 才4號에 依하면 南北 交易을 許可制로 하여 北의 靑丹, 白川, 磁岬, 竹岩, 陶門里등을 指

定 去來場所로 하고 品目은 對外貿易許可品目에 準하여 商務部의 許可를 必要로 하게 되어 있었다. 그後 同年 9月 27日 事情에 依해 이 交易이 中斷되고 10月 27日에 다시 交易條件이 發表되었다.

이에 依하면

(1) 綿布, 生 고무, 綠綿 등의 流出은 禁한다. 但 이미 이들 商品의 代償物資로서 北韓側 物資를 들여오는 許可를 얻은 것은 此限不在.

(2) 今後 北韓에 期待하는 物資는 苛性소오다, 팔프等으로서 流出 物資는 機械類, 電氣製品 등으로 限定하고 있다.

그後 이를 補充하여 다음과 같은 南北物資交流의 品目別 數量이 發表되었다.

1) 들여오는 物資 (月間需要量, 單位 屯) .

카아바이트 (400), 苛性소오다 (100), 팔프 (225), 소오다灰 (55)
카이본 黑 (5)

2) 代償으로 나갈物資 (月量 單位 屯)

車輛部品 (10), 自轉車部品 (2), 工具 (3), 木 (30), 電線 (5), 유리 (1), 펌프類 (30), 鑿岩機部品 (20), 電氣製品 (2)
海草類 (6), 電球 (5 万個), 運動靴 (10,000 足)

이와 같은 條件으로 物資交流가 行해진 셈인데 同年 12月 12日 새로이 南北交易 施行細則을 公布하여 43年 3月까지 계속되었다.

南北交易 施行細則 骨子は 다음과 같다.

1. 原則적으로 代償物資를 먼저 들여 온다.

2. 種目別最低 搬入量이 30 屯 以上の 경우에 만 許可
3. 有実績者에 對해서는 1人當 100 屯, 2 種目까지 許可
4. 代償物資 不要品目은 需給調査 完了때 까지 申請數量 全部를 許可.
5. 境界線까지 搬入을 끝내고 官公署의 車荷證明이 添付된 것에 對해서는 全量 搬入을 許可
6. 代償物資의 品目은 카바이트, 苛性소다, 팔프, 소다灰, 카본黑- 人絹糸로 한다.

이와 같은 數次에 걸친 規定變更에도 不拘하고 年間 約 17 億원 相當의 物資가 南北間에 交流되었다. 當時의 交流量을 보면 48 年에 搬入이 12 億 6000 萬원, 搬出이 4 億 6000 萬원, 49 年の 1 月부터 2 月の 2 個月間에 搬入이 1 億 7000 萬원, 搬出이 2 億 7000 萬원에 이르고 있으며 48 年中의 交易実績은 다음과 같다. (略)

한편 48 年 5 月 14 日 對南 斷電까지에 韓國은 北으로부터 電力의 供給을 받아 왔다. 解放直前까지 우리나라의 總發電量은 177 萬 KW였는데 그中 北이 156 KW, 南이 21 萬 KW로서 韓國側의 發展能力은 韓半島 全發電量의 12 %에 不過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發電施設은 거의가 水力임에 反해 南韓은 70 %가 火力이며 燃料事情등으로 因해 當時의 韓國의 發電量은 全體의 4 %에 不過했다. 따라서 當時 우리의 最大의 打撃은 北으로부터의 斷電이었다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것은 마치 現在의 石油波動과도 비슷하며, 또 그 衝擊의 遠因도 發電施設의 北水南火에 緣由한 것이다.

才3節 北韓의 貿易實態

7.4 声明을 經濟的인 側面에서 보았을때 가장 關心을 많이 끄는 것은 「多方面에 걸친 諸般交流」의 一環으로서 南北間에 將次 있을 것으로 予想되는 物資의 交流이다. 實際로 南北間에 物資의 交流가 이루어 진다면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量이 可能할 것인가. 이것을 答하기에 앞서 먼저 北韓의 貿易狀況을 살펴보자.

北韓의 貿易은 余他 많은 共產圈 國家들과 같이 「國家」管理下의 計劃貿易이다. 金日成은 1967年 12月 10大政綱을 發表함에 있어서 對外貿易에 관한 基本方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貿易의 發展은 社會主義 市場에 才一義的 意義를 求한다.

둘째, 亞阿의 新興國家들과는 完全한 互惠平等의 原則에 立脚하여 經濟關係, 通商發展에 努力한다.

세째로 社會制度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通商貿易은 北韓의 自主權을 尊重하고 北韓과의 經濟的 連繫를 바라는 限에 있어서 이것을 發展시킨다. 但 資本主義 諸國과의 經濟的 實務關係는 어디까지나 才二義的 意義밖에 갖지 않는다.

이에 依하면 北韓의 貿易은 純粹한 意味에 있어서의 貿易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政治的인 目的을 內包한 一種의 政治貿易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좀더 北韓의 貿易의 本質을 究明하기 爲해 北韓의 貿易制度를 概觀해 보면 所謂 憲法에 外國貿易의 國家管理를 規制하여 對外貿易을 計劃經濟에 從屬시킬 것을 規定하고 있다. 社會主義 建設에 必要한 物資를 一定의 輸入計劃에 따라 導入하고

輸入計劃을 達成하기 爲해 一定의 輸出計劃에 따라 輸出을 하고있다. 따라서 과아터貿易이 그 本質로 되어 있다.

貿易狀態는 政府間 貿易과 友好貿易이라 稱하는 民間貿易으로 二元化되어 있지만 友好貿易의 경우라 할지라도 政府間 貿易과 本質的으로 다를바 없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政府間 貿易은 長期 通商協定에 依해 每年 去來品目과 量이 定해지며 民間貿易은 相對 國에 友好協會를 設置시켜 同協會에의 加入商社에만 限해서 去來를 하고 있다.

貿易機關으로서 貿易部 管轄下에 國營商社와 協同商社가 이를 担当하고 있다. 例컨데 朝鮮設備輸出商社, 朝鮮設備輸入商社등 18 個商社가 輸出入 業務에 從事하고 있으며 그 中 設備과 機械類만은 一般 輸出入業務에서 分離되어 있고 나머지는 輸出入을 兼務하고 있다. 그 밖에 中共의 경우와 같이 國際貿易促進委員會가 있어서 西歐側과의 貿易의 擴大 및 開拓業務에 從事하고 있으며 對外 貿易機關으로서는 예멘, 칠레等 6 個國에 通商代表部를 두고 있다. 決濟通貨는 共產圈과의 경우는 루블, 其他의 나라와는 스타린 파운드 또는 瑞西프랑을 쓰고 있다. 1959 年 貿易銀行이 設立되어 國際 決濟業務를 取扱하고 있다.

貿易對象國은 1970 年末 現在 32 個國과 政府 或은 民間 貿易 協定을 맺고있고, 그 밖에 日本을 비롯 말레이져, 캐나다, 이렐리, 西獨등 19 個國과 去來를 하고 있다. 協定貿易國으로서는 共產圈에서는 소聯을 비롯하여 13 個國이며 亞細亞 地域에서는 印度등 6 個國, 그리고 中近東, 阿大陸에는 이락등 11 個國 그밖에 필리핀, 오스

트레일러 등이 있다. 貿易高는 北韓이 統計를 發表하지 않기 때문에 正確히는 모르지만 大體로 7~8 億달라 程度로 推測된다.

才 4 節 南北物資交流의 可能性 檢討

74 聲明에서 合意된 多方面的 交流中 想定되는 交流 可能分野로서는 먼저 文化, 體育, 物資 등의 交流가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前提가 必要하다.

첫째로 南北間의 對話의 進行如何에 따라 비로소 그 可能性이 具体化되는 것이다. 調節委員會의 運營이 順調롭게 進行될 때 즉 調節委에서 協議되고 合意를 얻을 때 비로소 그 可能性이 提起될 것이다. 萬一 雙方이 다 交流分野 또는 方式에 對해 異見을 提示했을 때는 交流의 實現은 커녕 그 可能性마저도 危殆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交流이던 그것은 南北間의 對話의 進行과는 不可分の 關係에 있다.

둘째, 對話를 促進시키는 方法의 하나로서 그 可能性이 考慮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分野 또는 範圍가 極히 制限되고 따라서 部分的으로 밖에 試圖될 수 밖에 없다. 記者의 交流도 調節委의 運營과는 關係없이 赤十字會談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질 可能性이 이미 示唆되었다.

셋째로 모든 交流가 設令 實行段階에 들어간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 限界가 있는 것이다. 相當한 期間에 걸쳐 對話의 段階가 계속될 것으로 發展된다.

네째, 또 하나 重要한 것은 어떠한 形態의 交流라 할지라도 그 交流對象은 內國的인 範圍로 限定된다는 것이다.

74 声明에서 合意本 主体의 概念에도 飛躍的인 解釈을 하고있다. 北韓을 하나의 實체로 認定하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 實在은 어디까지나 形式論理上의 實在이지 政治的인 實在로서 認定하는 것은 아니다. 政治的으로 보았을 때 北韓은 嚴然한 韓國領域의 一部이다. 다만 對話의 對象으로서 限定된 實在性을 認定할 따름이다. 이點 74 声明으로써 國家間의 合意인것 처럼 國際法인 意義를 준다거나 物資交流을 貿易의 概念으로 認識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前提下에 지금부터 行해질 物資交流의 可能性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構造的인 面에서의 南北經濟의 補充性은 4 半世紀라는 斷絶이 있었는에도 不拘하고 아직 尚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解放前 甚 植民地時代에 築成된 南北經濟의 補充性은 解放後 北은 計劃經濟下에 共產主義 經濟體制를 推進하고 南은 南대로 經濟의 計劃化에 依해 近代化를 進行시켜 왔지만 相互 補足해야 할 當爲性은 如前히 남아있다.

특히 半島全體의 物資의 需給關係에서 본다면 消費産業이 앞선 韓國側에서나 또는 消費材工業이 極히 뒤떨어진 北韓의 實情에서도 南北經濟가 서로 補足的인 機能을 맡게 될 余地는 充分히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南北間의 物資交流가 그러한 經濟的 必要性에서 만 促進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理由는 物資交流에 政治性을 排除할 수 없는 北韓의 異質的

인 經濟體制와 政治體制에 있다. 北韓은 貿易을 嚴重한 國家管理 下에서 計劃貿易을 實施하고 있으며 特히 共產圈에 對한 依存度가 80%라는 高率을 占하고 있다. 그래서 北韓은 物資交流를 貿易의 一部로 看做하는 可能性이 많다. 万若 그들이 南北間의 物資交流를 國際貿易과 마찬가지로 看做한다면 여기에 政治性을 強하게 作用할 것은 變한 노릇이다. 따라서 交流對象 品目的 選擇이나 數量의 決定에 政治的인 配慮와 이에 依한 某種의 制限도 加해될 것이다.

또 交流方式에도 많은 難點이 있다. 物資交流가 實現되기 爲해서는 그를 爲한 方式, 手續이 調節委員會에서 協議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交流의 루우트와 節次等 決濟方法이 清算等 아직도 많은 難題가 남아있다. 結局은 原始的인 形態인 [파티]方式이 될 것이겠지만 이럴때도 賣買價格의 設定基準을 어떻게 定하며, 또 内外國稅에 關한 稅制上의 差를 어떻게 取扱할 것인가등 容易한 問題는 아닌 것이다.

物資交流의 節次에도 難點은 있다. 즉 停戰線이 있고 緩衝地帶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狀況下의 物資 受授의 節次는 決코 容易한 것이 아니다.

場所 또는 受授地點이 設定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勿論이려니와 한편으로는 物資交流機關의 設置를 必要로 할 것이며 輸送手段이나 이에 따른 諸般問題, 그리고 檢収機關의 設置등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一般 貿易去來에 있어서 번번이 일어나는 問題인 크레임등이 發生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物資交流上의 諸問題는 앞으로 調節委에서 檢討되어야
겠지만 이에 다시 制度 또는 政策上의 整備 補完도 講究되지 않
으면 안된다.

現在 우리나라는 政策的인 考慮에서 非敵性 共產圈과의 貿易을
認定하고 있지만 敵性 共產圈에 대해서는 禁하고 있다. 또 物資
交流에는 円滑한 遂行을 爲해 關係者의 交流를 隨伴하는 것이 常
例로 되어있지만 이것 亦是 慎重이 생각해야 할 問題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物資交流의 狀態가 今後 어떻게 擴大되느냐는
것이다. 論理的으로는 經濟交流까지 나아가게 되지만 万若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거꾸로 「現狀凍結」을 固定化하는 結果가 되지
않는다는 保障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統一目的의 方法은 顛
倒되어 버려 또하나의 悲劇을 낳게 된다.

以上 몇가지의 前提下에 想定되는 物資交流의 可能性과 問題點을
考察해 보았다. 結論적으로 物資交流는 決코 容易하게 實現되리라
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設使 이와 같은 交流가 試圖된다해도 많은
難點을 낳기고 있기때문에 그야말로 對話 以上으로 어려워질 것이
다.

北赤十字會談을 北韓赤十字社에 提案했던 것이다. 崔斗善 總裁는 이 提案에서 " 4半世紀에 걸친 南北간의 障壁은 모든 民族的悲劇의 源泉이며 特히 南北으로 흩어진 離散家族의 悲劇은 今世紀에 있어서의 人類의 象徴的悲劇 " 이라고 指摘하고 이것을 人類愛와 災難救護를 基本的使命으로 하는 赤十字事業의 對象이라고 規定하면서 " 이러한 離散家族의 悲劇은 南北간의 障壁이 徹廢됨으로써 비로소 完全히 終息될 수 있지만 이것이 短時日內에 實現되기 어려운 現實에 있어서 적어도 1000萬 南北離散家族의 實態를 確認하고 이들의 近況을 알리고 그 再會를 斡旋하는 家族찾기運動 " 만이라도 먼저 展開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前提하고 이 問題를 具體적으로 協議하기 爲해 " 南北赤十字 代表들이 한자리에 모여 會談할것을 提案한다 " 고 말했다.

또 崔總裁는 同日付로 國際赤十字社機構 및 各國 姉妹赤十字社에 보낸 書翰에서 " 南北 1千萬離散家族 찾기運動 " 의 提案은 " 離散家族의 生死를 確認하고 이들의 解放을 될 수 있는대로 容易하게 하기 爲해 努力한다 " 는 要旨의 才19次 赤十字國際會議 決議의 精神에 立脚한 것이라고 말하고 " 따라서 이를 爲해서는 人道主義 原則을 조금이라도 褻치는 政治性은 排除되어야 한다 " 고 強調했다. 南北間의 緊張과 對立은 一舉에 解消되지 않는다는 것은 主觀的, 客觀적으로 明白한 現實이기 때문에 南北간의 異質的 體制 및 思考, 感情의 差異를 克服하면서 對話를 成功으로 이끌기 爲해서는 南北間의 不信感을 除去하여 相互信賴의 雰圍氣를 造成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南北融和의 前提條件이 造成되지 않은채 高次元的

終局的인 對話를 試圖한다면 오히려 對立感情이 激化하여 緊張狀態를 加重시킬 것이 明白하기 때문에 南北간의 對話는 먼저 對立要因의 減少가 쉬운 問題부터 取扱함으로써 그 成功이 期待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初歩的인 對話의 成功은 將來의 보다 次元높은 對話로 發展시키는 基礎를 만드는 것이며 그 成功이 期待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高次元의 對話를 힘으로써 失敗하는 것 보다는 段階的으로 對話를 밀고 나가는 것이 實質적으로 南北간의 緊張緩和를 促進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어쨌든 大韓赤十字社가 提案한 南北赤十字會談의 性格이 비록 人道的인問題에 限界 있다해도 国土分斷 以來 처음으로 南北간에 이루어지는 實質的인 對話라는 點에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또 南北赤十字會談이 成功하면 그것이 基礎가 되어 余他の 問題들도 對話를 통해서 解決可能한 無限의 可能性이 發見되거 때문에 現實적으로 高次元的인 것 보다는 이와 같은 初歩的인 對話가 오히려 南北問題 解決의 실마리가 된다는 點에 있어서도 意義가 큰 것이다. 여기에 또 닉슨美大統領의 訪中이라는 政治的 衝擊이 일어났다. 우리 韓國民은 8·12 提案에 依해 이와 같은 衝擊에 對해 一種의 免疫性이 생긴 것 같았다. 今後도 激變하는 事態의 趨移에 어쨌든 우치함에 있어서 그 衝擊을 緩和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南北赤十字會談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지만 그간의 會談經驗 더욱이 近來의 北韓의 엉뚱한 姿勢는 우리에게 鑿鍾을 울려주고 있으며 忍耐를 強要하고 있다.

才 2 節 南北赤十字會談의 그간의 成果

以上과 같이 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으로 홀어진 1千万家族찾기 運動을 目的으로 한 人道的 南北會談을 提案한데 對해 北韓赤十字會가 그것을 그들의 中央委員會 委員長이름으로 受諾함으로써 分斷 26年만에 처음으로 南北對話가 열리게 되었다.

大韓赤十字社와 北韓赤十字會의 雙方의 意思를 文書로써 確認하기 爲해 板門店 中立國 監視委員會會議室에서 雙方의 派遣員은 5次的 接觸을 가졌었다. 이어서 그해 9月 20日 같은 場所에서 歷史的인 才 1次 南北赤十字 予備會談을 開催하게 됐으며 南北이 各各 5名씩으로 構成된 代表團을 出席시켰다.

이 予備會談은 25次的 本會談과 13次的 實務者會談(非公開)등 43次的 會談을 板門店에서 1年을 끌어 겨우 議題(本會談의)의 合意를 보았지만 우리는 이 予備會談에서 予期치않은 難關과 迂余 曲折을 겪지않으면 안되었었다.

우리 代表團의 主導者的 忍耐와 誠實한 說得에 依해 雙方은 板門店 境內에 "常設 赤十字會談 連絡事務所"를 設置하고 UN軍側 建物인 "自由의 집"과 北韓側 建物인 "板門閣"間에 直通電話를 開設할것. 本會談을 서울, 平壤으로 번갈아가며 開催하는것도 合意를 본 것이다. 그것은

- ① 本會談의 場所
- ② 本會談의 日時
- ③ 本會談의 議題

④ 本會談의 代表團 構成問題

⑤ 本會談의 進行規程 등 5 個項目이었다.

이에 따라 才 2 次 및 3 次의 予備會談에서는 本會談의 場所問題가 있었는데 여기서 北赤側은 本會談의 場所는 板門店이라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나 우리 代表團은 双方의 赤十字 中央機構가 있는 서울과 平壤에서 交互로 여는것이 效果的이라고 主張하면 이와 附隨된 많은 意義를 力說하자 北赤은 若干 누구러지면서 먼저 板門店에서 한번 연다음 그것이 円滑하게 進行되면 서울과 平壤에서 열자는 修正案을 내었으나 結局 우리側의 提案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우리側은 그에 따른 8 개項目의 追加議題를 提案했다. 이에 대해 北赤은 予備會談의 最終段階에서 本會談의 進行規程 問題를 討議할때 이를 함께 討議한다는 條件附로 同意했다. 才 4 次에서 6 次에 이르기까지 「本會談의 時間」問題가 討議되었는데 이때까지 우리側에 主導權을 빼앗겨있던 北側은 그들의 그것熱意를 偽裝하기 爲해 客觀적으로 아무런 妥當性도 없이 12 月 1 日에 才 1 次 本會談을 열자고 主張하면서 갑자기 攻勢的 姿勢로 나왔다. 그들은 本會談 開催時日 問題는 이미 予備會談에서 議題로서 定해져야 한다고 頑強히 主張하면서 한치도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이에 對해 우리側은 予備會談에서의 慎重한 基礎作業 없이는 本會談의 成果는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에 予備會談에 山積되어 있는 많은 問題들의 討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時點에 있어서 어떻게 本會談의 時日을 미리 못박을 수 있느냐고 反問하고 予備會談이 円滑한 成果를 거두기 爲해서는 本會談의 日字를 미리 定

함으로써 予備會談의 遲延을 招來해서는 안된다고 說得하여 "第1次 本會談은 予備會談 終了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開催한다"는 代案을 提示했다. 北赤은 우리의 이와 같은 合理的 提案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韓赤이 本會談날짜를 莫然히 遲延시켜 進行中인 予備會談을 限없이 끌어가고만 있다고 會談遲延의 責任을 우리側에 轉嫁시키려 늘었다. 그러나 結局은 우리側의 代案에 同意하지는 않았지만 "71年 12月 10日 午前 10時에 第1次本會談을 연다"고 그들의 從來의 主張에서 後退했으며 다음 議題의 討議進行에 同意했다. 이에 따라 本會談 開催날짜의 問題는 予備會談의 끝날무렵에 再論기로 하자는 우리側 主張이 貫徹된 것이다.

第3節 庭苦끝에 本會談議題 確定

長長 317日의 予備會談에서 本會談의 議題를 두고 雙方間에 議論이 벌어졌다. 우리側은 71年 10月 27日의 第6次予備會談에서 다음과 같은 5個項의 本會談 議題를 提議했다.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의 生死 및 所在를 確認하고 그들의 近況을 알려주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끼리의 書信交換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의 再會斡旋 및 相互 訪問 問題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의 再結合 問題

⑤ 其他 付隨的으로 解決할 問題 등이었다.

이에 對해 北韓側의 議題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 및 親友의 自由往來와 相互訪問을 實現시켜주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 및 親友間의 自由로운 書信交換을 實施하는 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을 찾아주고 再會를 斡旋하는 問題 등이 있다.

以上과 같은 兩側의 提案을 比較해 보면 北赤側은 南北間의 冷嚴한 現實을 全히 度外視하고 南北問題를 一挙에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헛된 名分論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對해 韓赤側은 南北間의 人道的 會談을 提議하게 된 立場을 現實的 可能性에 立脚한 合理的 段階的인 解決策을 試圖하려는 實際論을 展開한 것이다.

즉 韓赤側은 事業의 對象을 離散家族의 切實한 苦痛을 먼저 덜어준다는 點에 對해 北赤側은 그 範圍가 莫然한 "親友"까지 늘고나와 事實上 南北同胞 全體를 對象으로 한다는 內容이었다. 또 事業內容에 있어서도 韓赤側은 赤十字活動의 基本原則과 國際赤十字의 事業慣例에 비추어 適切한 項目을 合理的 順位에 따라 提示한데 反해 北赤側은 赤十字의 事業目的으로서는 到底히 納得할 수 없는 말하자면 "自由往來"와 같은 非現實的인 그리고 또 赤十字로서는 손댈 수 없는 項目까지도 包含한 提案과 主張을 되풀이한 것이다.

韓赤側은 赤十字活動의 原則이 人間의 苦痛 中에서도 가장 緊急한 苦痛부터 救濟하는데 있다는 點을 強調하고 말하자면 "親友"問題까지 解決할 수 있는 條件이라면 固태여 赤十字會談까지 열 必要도 없

다고 말했으며, 또 韓赤側이 提示한 「家族」은 核家族은 勿論 가까운 親戚까지도 包含한 概念으로서 理解되어야 한다고 始終 忍耐와 誠實한 態度로 說得했던 것이다.

그後 韓赤側은 才11次 予備會談 때에는 南北會談을 主導하고 있는 立場을 考慮하여 이때까지의 包括的 家族概念에서 親戚概念을 分離시켜 이것을 獨立項目으로서 認定한 6개項의 才1次 修正案을 提出하였다. 이에 대해 北赤側은 才12次 會談에서 그들이 이미 提案해 둔 事業對象에서 親友間의 書信交換 및 相互訪問등을 削除하고 그밖의 問題를 增加한 修正案을 내놓았다. 이로써 이때까지 論難의 對象이 되어온 事業對象은 結局 「家族」 및 親戚에 限하기로 諒解가 成立되었다.

事業의 對象에 關係 이와 같은 合意를 본 다음의 予備會談에서의 論争點은 當然히 事業內容으로 옮겨졌다.

즉 韓赤側 主張인 「相互訪問」과 北赤側 主張의 「自由往來」가 深刻한 對立을 보였다. 여기서 韓赤側은 赤十字事業은 人道主義的 目的만에 限할 것이며 北赤側이 主張하는 「自由로운 往來」는 원래의 赤十字의 人道的 目的을 훨씬 넘어선 問題임을 指摘하고 赤十字事業의 原則과 性格에 適合한 「相互訪問」도 議題속에 넣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한편 北赤側은 自由往來의 論題로서 所謂 「大衆的事業」을 들고 나와 赤十字의 主管과 周旋없이도 事業을 成就해야 한다는 矛盾된 主張을 했다. 그러나 韓赤側 國際的 事業慣例가 보이고 있는 赤十字 尋人事業 방식에 따라 合理的으로 認定된 離散家族의 生死

및 所在의 確認에서 부터 이들의 再結合에 이르는 項目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赤十字의 主管과 責任下에 展開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이와 같은 赤十字의 主管과 責任을 度外視한 「自由往來」의 項目을 除外하고는 兩側의 提案에 本質的인 差異가 없으니 우선 共通點부터 論議하기를 促求하면서 드디어 1年 가까운 膠着에서 벗어났다. 그 結果 才17次 予備會談에서 雙方은 才2次 修正案을 提出했다.

먼저 우리側의 修正案은

① 別個項目으로서 設定한 事業對象의 「親戚」을 各項의 「家族」과 함께 併記하고

② 「相互訪問」 대신에 「相互訪問을 爲한 自由往來」로 한 것이고, 北赤側의 修正案은 「自由往來」를 削除하고 그 대신 「自由로운 訪問」으로 고친 것이었다. 韓赤代表團은 雙方이 各各 提出한 案에 依해 雙方의 基本的 見解差는 거의 調整되었다고 前提하면서 남은 問題는 議題의 久案을 어떠한 形式과 用語 및 順序로 整理하느냐 하는 形式上의 問題이기 때문에 이를 爲한 實務的인 作業이 必要하다고 強調했다. 이에 北赤側도 同意함으로써 結局 才19次의 予備會談(2月17日)에서 雙方은 「本議題 文案整理를 爲한 實務會談」을 構成할것에 合意를 보았다. 그리하여 72年 2月21日에서 6月5日까지의 13次의 實務者 會議가 予備會談에서 써 온 板門店 中立國 監視委 會議室에서 열려 雙方의 代表들은 虛心坦懷한 雰圀氣속에서 「相互의 異見을 接近시키기 爲해 誠意있는 努力을 傾注」한 結果 文字 그대로 難産의 本會談 議題

에 드디어 승의를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6月16日 다시
公開로 열린 才20次 予備會談 全体會議에서는 이를 確認했다.

이날 双方代表는 人事말에 뒤이어 合意文書를 交換함으로써 71年
10月27日의 才6次 予備會談 以來 14次의 全体會議와 13次의
実務會議를 통해 迂余曲折의 本會談 議題가 드디어 確定을 보게 되
었으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의 住所와 生死를 確認하여 알
리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間의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로운
再會를 實現시켜주는 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間의 自由로운 書信의 交換을
實施하는 問題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의 自由意思에 따른 再結合 問題

⑤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才4節 앞으로의 問題와 展望

上述한바와 같이 予備會談 討議事項中 南北双方에게 가장 重要的
本質問題라 할 수 있는 本會談 議題가 長期間의 論難 끝에 드디어
妥結됨으로써 가장 危險視되었던 1次의 難關은 克服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1年間의 予備會談에서 北韓側의 基本的인 立場
을 看破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始終一貫 그들의 偽裝된 平和統
一論을 들고나와 會談進行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人

道的 次元의 赤十字會談과 앞으로 推進될 赤十字 事業을 그들의 政治的 目的 達成의 한 手段으로 利用하려 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그들의 基本路線인 赤化統一의 一手段으로서 南北對話를 戰略視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本會談에서 그들의 馬脚을 드러내기 始作했으며, 甚之於 서울會談에서의 尹基福의 演說에서는 露骨的인 政治宣傳의 道具視하고 있는 底意를 露出시켰다. 그러나 그뿐이라 이들은 애초의 期待와는 反對로 南北 往來接觸이 오히려 그들의 閉鎖體制에 威脅을 加하는 逆機能的 結果에 唐慌하여 所謂 「社會的 法律的 障害의 除去」 云云하는 생트집으로 南北赤十字會談을 膠着狀態로 몰아 넣고는 그 責任을 我側에 轉嫁하기 爲한 宣傳에만 吸吸하고 있다.

그들에게 協商은 形態를 달리한 鬪爭이라는 것은 그들의 上典인 中共이나 소聯의 戰術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北側은 이에 한술 더 떠서 所謂 「了解 解說 要員의 派遣」이라는 公公然한 強奪的 要求를 서슴치 않는 態度를 取함으로써 全人類의 良心에 正面으로 挑戰해왔다. 北側의 이러한 破廉恥한 생트집은 會談膠着의 責任이 저들에게 있다는 全世界 良識의 判斷에도 어쩔 수 없이 拒逆하지 않으면 안될 「事情」이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 事情이란 다름아닌 그들 體制의 變質 崩壞 危險性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分斷母國으로서의 雅量과 民族統合의 主導的 立場에 선 冷徹한 遠觀으로써 다시 한번 忍耐와 誠意를 다하여 北側을 會談의 場에 誘導해 들여서 南北으로 흩어진 1千萬 同胞의 基源을 풀어주기 爲해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會談이나

協商은 相對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努力해도 北側이 理性을 되 찾아 民族的 良心을 蘇生시키지 않는限 앞으로의 赤十字事業은 그 進展을 樂觀視할 수 없을 것이며 平和統一의 基盤造成도 難關에 逢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調節"이 要請되지만 그 調節機構인 南北調委마저 一方的으로 中斷시키고 말았으니 여기에 次元높은 某種의 作用이 要請된다.

第4章 統一政策에 미친 影響

才1節 理念과 統一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는 大体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次元에서 論議되어져 왔다. 그 하나는 當爲로서의 統一이며 또 하나는 現實로서의 統一이다.

當爲로서의 統一은 端的으로 「統一은 民族의 国土課題」라는 말로 表現되어 왔다. 韓民族의 最大의 念願은 南北으로 分斷된 国土의 統一에로 集約되며 이것을 成就하기 爲해서는 民族의 全精力과 叡智를 集中해야 한다는 主張이 1945年 8月 国土가 分斷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一貫하여 強調되어 왔다.

왜 統一이 民族의 国土課題이며 무엇때문에 統一은 이룩되지 않으면 안될 民族의 念願이 되어있는가 라는 素朴한 물음의 余地마저도 있을 수 없는 自명한 問題로 通念化되어 있다.

韓國民에게 統一은 마치 宗教的 信仰과도 같이 絶對적인 것이며 冷靜한 理性的 判断의 所産이기 以前에 타오르는 民族意識의 부르짖음이며 同胞의 一体感이 그만큼 뿌리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現實로서의 統一問題에 正面으로 부딪쳐 보면 國民을 비롯해서 政治家는 그 누구도 確信있는 解決策을 發見하지 못하며 다만 失望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와 같은 失望感은 国土가 分斷된 채 28年을 經過해 온 韓國人에게 一種의 縮念이 되어 自己喪失의 狀態에 빠져 들어가는

原因이 되어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現實로서의 統一의 어려움을 痛感하면 할수록 當爲로서의 統一에의 意慾은 한층 더 強烈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冷嚴한 現實的 障壁을 打破할만치 強烈하지는 못하다는 곳에 民族의 苦惱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當爲로서의 統一論이 아니다. 統一이 우리民族에게는 時急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當面의 課題라는 점을 새삼 強調하고 그러니 우리는 統一成就를 爲해 蹴起해야 한다고 力說해 보았자 解決될 問題도 아니다. 現實的일 統一의 問題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難事라면 統一을 沮害하고 있는 決定的인 要因이 무엇이며 問題點이 어디에 있는가를 再認識한 다음에 다시금 統一問題를 다룰 必要가 있다.

一般的으로는 南北은 單一民族이기 때문에 感情이나 理念, 政治制度 등에 拘礙되지 않고 그것을 보다 높은 次元에서 祖國의 統一을 圖謀해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를 忌避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不滿도 있다.

萬一에 그것이 正論이라면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西獨을 爲始해서 中國, 越南등도 벌써 하나의 國家 하나의 民族으로서 再結合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實現되지 않고 있는에는 반드시 무언가 根本的인 理由가 있지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그 根本的인 理由는 무엇일까 새삼 말할것도 없이 그것은 南北間의 理念의 對立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理念이란 個人 또는 集團 特有的 政治 社會思想의

体系를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政治理念 또는 思想이라 해도 좋다.

解放後 南北間의 理念의 對立은 共產主義와 議會民主主義 및 民族主義의 對立으로 因해 尖銳化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 데올로기의 時代는 지나 갔으며 國家利益 優先의 時代가 되었다고도 하며 「脫이데올로기」라는 말이 流行되고 있다. 이와 같은 認識은 部分的으로는 眞實性이 있다. 예컨대 美·소兩國의 外交는 서로 이 데올로기의 差異도 不拘하고 國家利益의 追求라는 觀點에서 進行되고 있다. 美國과 프랑스는 民主主義라는 共通의 이 데올로기위에서 있으면서도 서로의 國家利益에 있어서는 對立이 있다.

그러나 美소間의 平和共存이 提唱되고 美·中共의 接近이 劇적인 進展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各國이 자들의 이 데올로기를 拋棄해 버린것도 아니며 또 否認하고 있는것도 아니다.

이들 諸國은 다같이 自國의 이 데올로기를 固守하는 것은 當然하다는 前提下에서 서로 接觸을 繼續하면서 對決과 競爭을 다른 한편으로는 熾烈하게 버리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一部에서 誤解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데올로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裝飾品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데올로기는 人間의 頭腦속에만 도사리고 있는 單純한 思考는 아니다. 이 데올로기는 政黨의 政綱 政策으로서 또는 社會制度로서 그리고 또 革命運動의 指導原理로서 表現되는 必然적인 性質을 가지고 있다.

今日의 南北間의 制度上의 差異는 共產主義와 民主主義라는 이데올로기의 差異가 가져온 必然的 結果인 것이다.

6.25 南侵에 依한 戰爭이나 金日成의 獨裁體制도 그 모두가 이데올로기의 所産이다. 그것은 마치 스탈린 統治下의 強制勞動 收容所나 恐怖政治등이 이데올로기의 産物인것 처럼

이미 常識이 되어있는 것이지만 民主主義의 政治理念은 相對的 世界를 土臺로 하고 있다. 즉, 人間은 不完全하기 때문에 眞理는 어느 特定의 個人이나 党派에 依해 獨占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 自由로운 思想活動과 討議過程을 通해서 探究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 基調로 하고 있다. 그리고 政治權力 또한 어느 特定의 個人이나 党派에 獨占될 경우 濫用되기 쉬우며 橫暴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牽制하는 安全關을 만드는 것을 鐵則으로 하고 있다. 政治權力의 獨裁化를 点檢하는 安全關으로서 言論의 自由, 政治活動의 自由, 法治主義, 自由選舉등등 民主主義의 制度가 생겨났다.

이와는 正反對로 所謂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는 絶對的 世界觀을 土臺로 하고 있다. 現實的 世界에서의 唯一의 眞理는 맑스·레닌主義 思想이고 그밖의 一切의 思想은 虛偽이고 幻想이며 反動, 欺瞞이라하여 排斥한다.

共産黨은 이 「眞理」를 正確히 把握하고 實踐하고 있는 唯一의 政治集團이기 때문에 誤謬를 犯할理가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世界의 모든 現象을 正義와 不義, 빛과 어둠, 眞理와 虛偽, 友軍과 敵, 善과 惡으로 兩分하고 共産黨에 편들지않는 者를

徹底히 排斥하며 戰術的인 妥協以外의 그 어떠한 妥協도 否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爲해 共産黨이 政治權力을 掌握하면 푸로레타리아의 이름으로 徹底한 一黨獨裁를 斷行하여 流血, 肅清, 追放, 投獄등을 無慈悲하게 敢行하여 社會를 全體主義的으로 編制해 버리는 것이다. 오늘의 北韓은 典型的인 共産主義 體制下에 있으며 共産體制 中에서도 가장 지독한 곳이라는 것은 全世界에 알려져 있다. 北韓의 當局者들이 「祖國統一」을 외칠때는 반드시 北韓의 金日成 體制를 韓半島 全域에 擴大한다는 것을 示唆한다.

6·25 動亂은 軍事力을 가지고 韓半島 全域의 赤化侵略을 企圖한 가장 뚜렷한 証據이다.

金日成一派는 그러나 數年前부터는 平和的으로 祖國을 統一해야 한다고 侈하고 있다. 이들은 그 方法의 하나로서 두개의 案을 내놓고 있다. 그 하나는 民主主義的인 基礎위에 南北에 걸쳐 自由選舉를 實施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主張은 國際宣傳과 對韓國 宣傳放送을 통해 頻繁히 提議되고 있다. 또 하나는 「大韓民國의 赤化革命」을 통해 平和的으로 南北을 統一한다는 것이다. 즉, 韓國에서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決行하여 美軍을 몰아내고 現存政權을 顛覆시켜 「民主主義 政權」을 樹立한 다음 이 政權과 北韓의 「社會主義」 力量을 「平和的」으로 結合함으로써 統一을 達成한다는 것이다.

이 戰略은 近 10年前부터 體系化되어 北韓 勞動黨의 1黨 基本路線으로서 採択되어있는 것이다.

黨路線은 共產主義者들에게는 生命以上の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개의 案이 北韓側이 主張하는 「平和統一案」의 真相을 가장 適切하게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平和統一案은 그 方法 如何를 不問하고 그들의 一貫된 目標은 北韓의 共產主義 體制를 韓半島 全域에 擴張하는데 있다. 그 兵站基地는 勿論 北韓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北韓을 政治的 統一을 爲한 「革命基地」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들은 以上과 같은 平和統一을 自主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自主」란 統一問題를 外勢에 依存하지 않고 그리고 外勢의 干涉을 받지 않으며 韓國人 스스로의 힘으로 解決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金日成의 「自主」에 對한 解辭인것 같으나 그는 이러한 主張을 내걸고 韓國에서 美軍을 撤収시키고 大韓民國을 UN을 비롯하여 美國 등의 國際的인 支援勢力에서 孤立시키는 戰略을 展開하고 있다. 7.4 共同聲明이 發表되는 것과 거진 때를 같이 하여 北韓側이 美軍의 撤収를 要求하는 宣傳的 攻勢를 펼 것은 決코 偶然이 아니다.

흔히들 民族은 이데올로기에 알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問題는 一旦 뒤로 미루고 統一實現을 爲해 全力을 기울려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統一이 먼저냐 이데올로기가 먼저냐를 檢討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民族속에서도 이데올로기의 相異로 因해 政治鬭爭이 되풀이되며 最惡의 경우 이와 같은 對立이 內亂으로까지 發展한 例만도 歷史上 한두번이 아니다.

南北共同聲明은 思想, 理念, 制度에 拘碍되지 않고 民族의 大同團結을 圖謀한다고 闡明하고 있지만 共產主義者들이 이 約束을 忠實이지킬것을 期待한다는 것은 그들이 共產主義를 拋棄할 것을 期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才 2 節 韓半島 緊張緩和에는 寄与

共產主義者들은 그들 自身을 스스로 民族을 救하는 엘리트로 自勉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服從하지 않는 者는 民族의 叛逆者 階級の 敵으로 視하고 있다.

이와 같은 狀態下에서 南北을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爲해서는 共產主義者와 民主主義者 또는 民族主義者를 同時에 滿足시킬 수 있는 새로운 思想과 制度가 없이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思想과 制度는 이 地上에는 없고 또 發見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생길 可能性도 없다.

여기에 分斷國家의 統一을 不可能케 하는 根本的인 難點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難關이 가로놓여 있는데도 不拘하고 民族의 統一을 摸索하며 그것을 追求하지 않을수 없는곳에 우리 民族에게 주어진 悲劇的인 課題가 있다.

이러한 現代的인 狀況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可能的인 努力은 統一의 實現이 可能해 질 먼훗날에 期待를 걸면서 우선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爲해 寄与하는 일이다.

戰爭으로 因해 民族이 全滅할 危險性도 있을 수 있다는 冷嚴한

現實을 直視하여 積極的인 姿勢로 南北의 漸進的 接近을 피하면서 共同의 利益을 追求하는 것은 南北間의 이데올로기의 相異와는 關係없이 充分히 實行될 수 있는 일이다. 7.4 共同声明의 意義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南北間의 対決은 더욱 激化되고 思想鬭爭, 政治鬭爭 같은 것은 한층 더 苛烈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共產主義者들은 共同声明 같은 것도 結局은 그들의 最終目標인 韓半島 全域의 赤化를 爲한 鬭爭의 한 方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調節委가 發足하여 政治會談이 進行되고 있다고 해서 北韓側의 立場에 變化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短見도 類萬不同인 錯覺이다.

初期에 南北이 서울 平壤을 往來하면서 서로가 微笑會談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에 暗惑되었던 一部層도 8.28 以後의 오늘의 事態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變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北韓의 基本路線이 아니라 戰略일 뿐이다.

第 3 節 南北關係의 展望

모처럼 韓國側의 主導로 斷絶 4 半世紀만에 열린 두개의 對話의 窓口도 今年 8 月 28 日의 金英柱의 一方的인 中斷宣言으로 因해 다시 닫히고 말았다.

表面的인 口實로 金大中氏事件을 트집으로 하고 있지만 其 뜻은 그들이 韓國의 国力이나 國民의 反共思想을 過少評價하여 輕率하게 對話에 應했다가 이제 逆으로 그들이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繼統的인 攻勢에 이들은 지금 식은땀을 흘리면서 對話中斷의 責任轉嫁에 狂奔하고 있지만 世界는 그들을 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甚之於 그들의 宗主友邦인 소련마저도 對內外的인 機會있을때 마다 그들의 役지를 牽制하고 있다.

이런의 UN總會에서도 南北의 繼統的인 對話促求를 決議했으며 브레즈네프도 印度首相 간디와의 會談에서 이를 愆憑했다. 北韓이 아무리 役지를 써도 이러한 世界潮流에 拮까지 逆行할수는 없으며 또 그러한 힘은 勿論 없다.

그러나 南北對話에 對한 그들 나름의 그간의 中間評價는 그들 體態에 큰 危險要素로 登場해 있다. 여기에 그들의 苦惱와 矛盾이 있다. 바라건데 金日成은 여기서 民族의 悲願을 저파리는 慰를 再犯하지말 말고 一大覺醒과 民族의 良心을 찾아 平和統一을 爲한 對話의 窓口를 다시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客觀的으로는 그들은 언젠가는 되돌아 서 올것이다.

우리는 그 때를 肯定的으로 期待하면서 忍耐과 誠實로써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民族的인 努力을 傾注해와 할 것이다.